

예배 및 모임안내

2019-41호 2019년 10월 13일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주일학교 예배	주일 오후 1시35분	교육관 5번 교실
청년 기도모임	월 1회	교육관 7번 교실
말씀 나눔 모임	매월 셋째 주일	교육관 5번 교실
찬양예배	월 1회, 토요일	음대 강의실 217호
봉사자 기도 모임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행복을 나누는 건강한 교회(삼하7:21~29)”

주일 예배 봉사위원

	10. 20	10. 27	11. 03
대 표 기 도	김효종 집사	박재기 집사	정용현 집사
성 경 봉 독	김효종 집사	박재기 집사	윤석진 형제
헌 금 위 원	박재기 집사	김영희 권사	박재기 집사
안 내 위 원	황희순 집사	황희순 집사	박재기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 성경 읽기 -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우세요 (사49~66장, 아가서, 호1~3장)
2. 봉사자 기도회-매 주일 오후 12시 45분 유아실에서 모입니다.
3. 찬양예배 - 19일(토) 오후 2시 음대 강의실 217호실에서 모입니다.
4. 나눔의 시간 - 황희순, 정용현 집사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교우동정

생일	한덕기 성도(15일) 박재기 집사, 이노을 자매(19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 일 조	
추수감사	
합계(Euro)	

기도제목

1. 육체적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2. 새로 등록된 교우들이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3. 김선태, 장보경 협력선교사(성진, 예린, 주 허트번, 헝가리) 사역을 위하여
4. 전도, 선교, 구제에 힘쓰는 한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목사관 : Yperner Str. 7 28259 Bremen
☎ 0421/257 3831 | 0176-7242-4297(Mobile)
E-Mail : josefrhee@hanmail.net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반주자
- *기 원 Altargebet 정용현 안수집사
- *찬 송 Gemeindelied 21장 다같이
- *성서교독 Wechsellesung 교독문 67번 다같이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210장 다같이
- 기 도 Gebet 유미경 집사
- *성경봉독 Predigttext 레 17 : 1 - 7(구p173) 유미경 집사
(3.Mose 17:1-7)
- 설 교 Predigt **삶의 기준, 말씀** 이상호 목사
- 찬 송 Gemeindelied 213장 다같이
-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314장(1, 2절)..... 김효종 집사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 *폐회찬송 Schlusslied 54장 다같이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반주자

***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 Bitte erheben Sie sich)**

성도의 교제 친교실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

마라톤 선수인 에티오피아의 Haile Gebrselassie가 2008년 베를린 마라톤에서 2시간 3분 59초로 세계기록을 수립했습니다. 그의 기록대로 42.195Km를 달리려면 100미터를 15~16초에 주파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러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2시간이 넘는 시간을 오직 결승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마라토너에게는 결승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어떠한 휴식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중간에 탈진을 예방하기 위해 준비된 물조차도 달리면서 마셔야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세운 목표를 향해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베드로 사도는 보배로운 약속을 가진 성도들이 피해야 할 것은 정욕 때문에 찢어질 것들이고, 힘써야 할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벧후1:4) 그러나 삶을 살펴보면 피해야 할 것들은 더 자주하고, 힘써야 할 것들은 오히려 피해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생활 속에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키지 못한다면 찢어질 것을 붙들고 사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큐티하는 남자 / 이의수
(사랑패밀리센터 책임자)

* 일상의 임무를 행하는 것과 기도는 다르지 않다 - 로렌스 형제 -